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13) 소유나 존재나

삶의 목표는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속 깊이 이상주의자들입니다. 로맨티스트들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왜 보살님네들이,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이들도 다 컸으며, 아파트 평수도 남부럽지 않은데, 왜 집을 찾아,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대중전에 참여하고, 참선에 열중하십니까. 또 한편, 옛적의 사랑을 떠올리며, 마음을 나눌 사람을 은밀하게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외면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은 여전히 가난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공한 분들이 이렇진대,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가치'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과는 다른 곳에 있고, 우리는 지금 길을 잘못 들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붓다는 왜 성을 넘어 출가하셨을까

우리는 그동안 '위대한 약속(Great Promise)'을 믿었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무제한의 생산

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자유를 주고, 그리하여 인류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오랫동안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이 약속이 결코 지켜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설명을 제 식으로 부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적었듯이, 욕망의 무제한한 충족이 인간에게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욕망의 무제한한 충족이 행복과 안녕을 주는 것이라면, 고타마 붓다께서는 모든 것이 넘쳐나게 갖추어져 있는 그 삶을 버리고 유성출가(離城出家), '말을 타고 성벽을 넘어 출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앙굿타라 니카야>에는 사카 족의 고타마께서 누리던 유족함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하인과 종들에게 쌀겨에 소금죽을 섞어 주었으나,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과 종들에게 쌀밥과 고기로 된 음식을 주었다." (플커 초츠·<붓다>)

"비구들이야, 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 나를 위해 각색의 연꽃이 핀 연못들을 만들어주었고, 몸에는 베나레스산 향유를 뿌렸으며, 거기서 생산된 옷감으로 옷을 지

어 입었다. 내 머리 위에는 늘 하얀 양산이 받쳐져 있었다. 추위도 더위도 몰랐고, 먼지도 이슬도 맞지 않았다. 계절마다 다른 궁전에서 살았다. 우기 낙 달을 지낼 동안, 시녀들이 나를 둘러싸고 음악을 연주해 주었고, 나는 궁전에서 나올 일이 없었다." (브루스터·<고타마 붓다의 생애>)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도 붓다의 근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속에는 막

속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의 의지와 행동이 권력과 산업, 매스컴에 의해 조장되고 조정되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곳곳에 감시카메라와 곳곳에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환상의 비현실 속에서 추상적으로 타율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7세기 서양 철학자 스피노자가 비유한 대

다. 프롬은 이 모든 요소들이 '지구적 종말'을 예비하고 있다는 우울한 경고를 발하고 있습니다. 프롬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정신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존하고 있다!" 이 진단에 따르면, 우리는 개개인의 내적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구라는 푸른 대리석 구슬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도 삶의 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우리는 우리의 '본성', 혹은 '불성(佛性)'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관적으로 감당하는 욕구'와 '객관적으로 타당한 욕구' 사이에 있는 근본적 차이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구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구분은 동서양의 지혜의 전통을 읽는 키워드입니다. 불교 또한 그 전통을 따라 우리의 일상적 욕구가 인간의 객관적 본성과 일치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것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발상이 불교를 도저한 이원론 위에 세우게 했습니다. 상식은 이 점을 잘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어렵게 느낍니다. 심하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혹은 말씀은 좋으나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웃고 맙니다. 그러나 불교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자가 그랬지요, "듣고서 끝까지 않으면 진리가 되기에 부족하리라."

불교는 '주관적으로 감당하는 욕구'의 소외된 메커니즘을 밝히고, 그것을 회향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욕구'에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붓다는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을 얻고도 그 진실을 쉽게 설파하지 않으셨어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상식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 오직 오랜 선정과 지혜의 개발로서만 보이는 이 '자리'를 대중들에게 말해 보아야 써가 먹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관적 감당과 그 환상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위해 구심을 잡고 대 자비를 베풀었으며, 불교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결단에 깊이 합장 올립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고 있는 '동물적 욕구' 뿐만 아니라, 의미와 유대의 '인간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 지점은 얼른 눈에 띄이지 않고, 은밀하여, 그리고 순유에 있어 늘 뒷전이기에 때문에 자각하기 어렵고, 또 그 욕구에 적절한 방법과 기술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너에게도 남이 있느냐, 있다면 남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얻은 자유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세타키와 냉장고가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고 손발을 더 자유롭게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예측적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억압이 줄어들었으며, 미셀 푸코의 팬옵티콘(Panopticon·'모든 것을 본다'는 뜻이)에 시하고 있듯이, 보이지 않는 감시가 삶의 전 영역에 침투해 있고, 더구나 인간은 자신의 욕망마저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는 예



로, 돌맹이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외적 강제와 억압이 줄어들고, 개성을 존중한다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획일적 가치와 판에 박은 삶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간 국가간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고, 네 번째는 생애의 위기와 핵전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프롬은 '소유'에서 '존재'에로 라는 말로 정식화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가히 불교적이 아닐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 실패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쾌락이라는 잘못된 심리적 전제로부터 야기된 것입니다. 삶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주장사파라...

36 진각 국사의 '자비'



조태호

진각님이 지눌선사의 문하에 있을 때

하루는

그대는 이걸 대나도록

소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쁘게 주십시오

듣자하니 그대가 설법을 했다구?

부처님 말씀만 전해 드렸을 뿐입니다...

당장 짐을 꾸려 이걸 대나도록 하라!

네?

3살먹은 애가 장수의 칼을 든 것과 마찬가지

그대는 의술을 배우지도 아니한채 이미 칼을 들고 설쳤노라!

평생 묵언 수행자도 있거늘...

좀 안다고 쉽게 내뱉는 속인과 진배가 없다

말 꾸물거리고 싶나!

스님 세상살면서 죄 지은 일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데가 없는데 어인 까닭인지?

한데 오는 길에 나뭇가지가 막혔을 텐데

단지 그대뿐이냐? 이 세상 모든사람이 다 그러하지

또 표정이 왜 그래?

유리조리 잘 피했습쇼

근데 이 친구는 나뭇가지를 치우고 오잖아요

갑자기 미운사람이 생각나...

예쁜것 잃으면 잠 못 이루고

미워하면 증오로 재밌을 태워 상하자-세끼 먹거든 분별망상은 버려라

삼배

스님 왜이리세요?

뒤에 올 사람 생각해서 치운 그대가 부처요

어떻게 생각할까 자비로운 맘이 곧 부처쇼...

진각해심(1178-1234): 고려 중기의 스님. 조계산 수선사(송광사)의 제2대 법주. 전남 회순 생. 보조 지눌 스님에게 출가. 지리산에서 수행. 주로 수산사에 머물며 간화선법 전파.

네티즌 교리문답

'일없는 사람(無事人)'이란

일없는 사람(無事人)이란 어떤 자인가? 놓고먹는 이는 아닐 것이고, 유유자적 하는 도인일 텐데요. 어떤 경지의 수행인을 무사인이라 하는지요? (무사태평)

답: '일없는 사람'이란 주어진 생업이나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열중하면서 그 과정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즉, 반면되어 주어지지 않되 일을 앞뒤를 재지 않고 열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들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깊이 사색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본인인 일한다는 생각도 없고 사색한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무사인으로 보이는 이가 꼭 진실한 무사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눈밝은 이가 무사인인 줄 알지만 정작 본인은 스스로가 무사인이라는 생각이 없을 뿐입니다. (도덕산))

답: 무사인이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할 일을 마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또 생기지만, 할 일을 마친 사람은 생사를 초월하며, 매사가 도리에 합당합니다. 사물이 생겨날 때(作用)는 형상(相)으로써 자기를 나게(生)한 근본인 본체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긴 모습만 보고 근본인 본체를 알지 못합니다. 형상에 감춰진 근본을 요달하여 결합한 사람은 자기를 있게 한 근본과 스스로 하나 되었으므로 이 사람을 일러 일마친 '한가한 도인(閑道人)' 혹은 자기의 본분을 다한 무사인이라 합니다. ('들사자')

답: 무사인이란 생사(生死)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더 이상 억지로 할 일이 사라져 대자유를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전심법요>에서 황벽 선사는 무사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갖 종류의 다양한 지식일지라도 구하지 않는 것만 못하니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도인이란 억지로 꾸미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진실로 허다한 종류의 마음은 없는 것이며, 또한 말할 수 있는 도리도 없다. 아무런 할 일도 없으니 해산하라."

진각 선사는 <진각국사어록>에서 이렇게 무사인을 풀이합니다. "당정에 망상을 쉬고 그치면 바로 존재 하나하나에서 밝혀지고 사물 하나하나에서 지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결코 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인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르른 벗어날 생사고 없고 추구할 법도 없으며 단지 하나의 할 일이 없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푸른바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1	7	8		
	2	9		10
3	11		4	12
		13		
	5	14	15	
			6	

상식퍼즐

- 가로
1. 십계 가운데 불계를 제외한 나머지 구계의 총칭. 중생이 사는 세계
 2. 학의 목처럼 길게 빼고 간질히 기다림
 3. 물을 아끼고
 4. 종잇조각에 지방분을 써서 만든 신주(神主)
 5. 비바시불, 시기,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카시아파, 석가모니 등 지난 세상에 나타난 일곱 부처님을 일컫는 말
 6.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람.

- 세로
1. 음력 팔월 보름의 좋은 날이라는 뜻으로, 추석을 달리 이르는 말
 2. 삼학(三學)의 하나. 부처님이 정한 계율을 배우는 것
 3. 원고 쓰기를 마친
 4. 사람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어 넣음
 5. 아미타 삼존불에서 아미타불 우측에 있는 협시보살로 지혜를 상징
 6. 보살
 7. 우리 전통 음료의 하나로, 생강과 계핏가루를 넣어 만드는 것
 8. 열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힘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
 9. 윗나무 진으로 만든 안료
 10. 몸이 아주 큰 사람
 11. 발사된 폭발물이 터지지 않음.

정답은 26면에